

대학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University Archives:
A Case Study of Hanshin University

장 윤 희(Yun-Hee Jang)**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수립안 |
| 2.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의 설정 | 3. 1 수집정책 구성요소 |
| 2. 1 대학역사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 설정 | 3. 2 기록관의 사명문 작성 |
| 2. 2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 | 3. 3 수집분야와 우선순위의 설정 |
| | 3. 4 기록물 수집을 위한 지침 |
| | 4. 맺음말 |

<초 록>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이다. 한신대학교를 모델로 하여 수집정책 수립의 핵심부분인 수집분야를 설정하고, 기록관의 사명문 작성, 수집분야 및 우선순위 정의, 기록물 수용을 위한 지침과 관련한 내용들을 항목별로 검토, 적용하여 보았다.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을 통해 수집업무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수집정책, 대학기록관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llection policy of University Archives.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on policy enables university archives to concentrate in which memories of university to remain and provide as archives. Accordingly, this study, making a model of university archives in early sage of establishment, intends to investigate the collection policy for collecting archives in university. The first chapter defines the fields and categories of collection of archives. In order to define the collection categories, it outlines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 and set up the fields and categories for documentation. In the second chapter, this study examines about the factors which forms the document of the collection policy, such as a missions statement, a guide to collection, and a guide to acceptance by items.

Then, this study, applying items mentioned above, suggests a plan for a collection policy. The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may not represent the model of collection policy in the university archives. However, it is meaningful as a study of collection policy and has purpose and significance in making a stepping stone for more developmental collection policy.

Key words: Collection Policy, University Archives

*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minervaf@empal.com)

1. 머리말

대학은 오래도록 발전해온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자신들만의 역사의식을 형성한다. 역사의식은 대학의 이념, 정체성, 학풍 등으로 발현되어 대학 구성원들로 하여금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형성하게 한다. 이를 토대로 대학은 과거의 역사를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한 가운데 대학기록관이 있다.

대학기록관은 위와 같은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이 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해낸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으로써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대학의 공식적인 기억을 제공하며, 대학의 발전 과정을 증명하게 된다.¹⁾ 즉, 대학기록관의 중요한 역할은 대학의 역사와 활동, 역사의식, 정체성 등을 물질화²⁾시키고, 이들을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는 기록물의 '수집'에서 시작된다.

수집이란 기록관리기관이 기증, 구매 혹은 위탁으로 자료를 받아 그들의 소장물에 역사적 기록물을 증가시키기 위한 실무과정을 말한다.³⁾ 그러나 수집은 단순히 여기저기에서 기록물을 이관 받아 소장량을 늘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기록관의 효용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지나온 역사를 나름대로 복원하

기 위해서는 수집업무가 방치된 기록의 이관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수집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록물을 수집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수집정책이다.

수집정책은 기록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과 수집의 목적을 담은 공식 문건으로 수집정책을 통해서 기록관이 무엇을 수집할지,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료의 유형이 무엇인지 등을 규명할 수 있다. 수집정책을 통해 수집활동의 방향을 미리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수집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어떠한 기억을 기록물로 남길 것이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다.⁴⁾ 특히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대학기록관은 체계화된 수집정책 수립을 통한 수집업무가 이루어져야 기록관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대학기록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대학기록관은 이제 설립 초기 단계에 있으며, 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업무 체계화를 위한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자칫 우연적이고 산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집업무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SAA, 『Guideline for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2002.

http://www.archivists.org/governance/guidelines/cu_guidelines.asp

2)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 책, 2002.

3) 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1987; Daniels M. & T. Walch, "Archival Acquisition", *A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s, 1984; Gregory S. Hunter, *Developing and maintaining practical archives(A How-To-it Manual)*, 1997.

4) Trudy Huskamp Peterson, 『기증과 아카이브즈』, 『한국국가기록연구원소식』 11호, 2002, 7.

연구를 위하여 설립 초기에 있는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⁵⁾을 모델로 하여 대학의 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수집정책 수립을 위하여 먼저 핵심적인 부분인 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수집정책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기록관의 사명문, 수집분야정의, 기록물 수용을 위한 지침과 관련한 내용들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신대학교의 역사기록물 수집정책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의 설정

2.1 대학역사기록물수집분야 및 범주 설정

2.1.1 대학 역사기록물의 범주

수집 대상이 되는 대학의 역사기록물은 아카이브즈(archives)와 매뉴스크립트(manuscript) 모두를 포함하여 지칭하였다. 대학기록관은 대학 기관에서 생산한 행정기록물 뿐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 즉, 교직원 및 학생들의 대학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을 모두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기록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아카이브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뉴스크립트가 되는데, 대학의 역사기록물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대학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대학의 역사와 특성에 따라

수집분야가 정의될 것이다.

2.1.2 수집분야 및 범주 정의를 위한 접근

수집정책 수립의 가장 큰 이점은 아키비스트가 수집 초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선정된 수집 대상 및 분야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수집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⁶⁾ 이러한 수집정책 수립에서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역사기록물의 수집 분야 및 범주의 설정은 대학기록관에서 문서화(Documentation) 할 주제와 활동 등을 정의하는 것이다. 수집분야를 정의하는 것은 다소 주관적인 활동으로 이를 객관화시키기 위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다소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기록물의 수집분야 설정을 위한 접근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대학기록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은 일반적으로 '증거의 수집' 과 '정보의 수집'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보의 수집은 증거의 수집과 확연하게 구분되지는 않아 실제 수집 활동에서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만, 증거의 수집이 대학 내 보유물을 보충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는데 비하여 정보의 수집은 다방면의 활용을 전제로 기록물의 보다 적극적인 확충을 지향하게 된다. 이들은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 보다는 대학의 정체성, 대학의 기능과 사명, 대학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대학 내외의 수요, 특정 정보군(情報群)의 확충 가능성 등을 토대로 수집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⁷⁾

증거와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대학기록관은

5) 한신대학교 부속기관, 2003년 10월 1일 설립, 2004년 4월 16일 개관.

6) Trudy Huskamp Peterson, 「기증과 아카이브즈」, 『한국국가기록연구원소식』 T1호, 2002, 7.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증거 유산을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학 공동체의 생활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적 사명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⁸⁾

결국 대학기록관의 역할은 그대로 대학기록관이 수집해야 할 즉, 다큐멘테이션 해야 할 주제 혹은 활동이 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증거 유산이 되는 기록물, 그리고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적 사명에 기여하는 기록물이 바로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학의 역사기록물은 앞에서 제시한 대로 증거와 정보의 수집 대상이 되는 기록물을 포함하지만, '정보의 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다큐멘테이션 해야 할 대상을 선별하기위한 접근은 대학의 정체성, 대학의 기능과 사명, 대학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대학 내외의 수요, 특정 정보군의 확충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사명을 검토하여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집 대상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기록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⁹⁾

대학의 사명문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지향하

는 교육 이념과 상식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데, 대학의 사명문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에 초점을 두고 대학구성원들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대학의 사명을 토대로 대학 설립 초창기의 정체성을 구현하며, 대학의 정체성과 역사를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는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 대학의 정체성과 역사를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는 수집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대학기록관은 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사명문 검토를 통하여 수집기록물의 분야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다큐멘테이션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수집분야를 정의하는 것은 기준이 될 만한 지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이어서 절대적인 객관화는 불가능 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수집범주의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다 객관화하고 기준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기록물 자체에 접근하기 보다는 기록이 생성된 배경의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기록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이 기록물의 수집분야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¹¹⁾

7) 이종흡, 『대학기록관설립의 필요조건: '미성숙한' 기록관리 방법의 시험 운용 방안』, 『기록학연구』 제3호, 2001, 4, pp.42-43.

8)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SAA, 1992, pp.17-18 : 전상숙, 「대학 Archives란 무엇인가: Archives의 개념과 내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 2001, pp.6-7.

9) Frye는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과 대학의 사명을 연계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기록관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혁신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Dorothy R. Frye, "Linking Institutional Missions to University and College Archives Programs: The Land-Grant Model", *American Archives Vol.56(Winter 1993)*, pp.36-47.

10) Dorothy R. Frye, "Linking Institutional Missions to University and College Archives Programs: The Land-Grant Model", *American Archives Vol.56(Winter 1993)*, pp.36-47.

11)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2.1.3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수집 분야 및 범주 설정

대학의 정체성, 대학의 기능과 사명, 대학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대학 내외의 수요, 특정 정보군의 확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대학의 역사를 사회발전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는 것 등을 통하여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의 수집분야를 설정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한신대학교의 대학 이념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위와 같이 한신대학교의 대학 이념에서는 대학의 교육 이념과 정체성을 기독교 정신, 기장성, 한신성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학문과 양심의 자유,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이념은 대학의 개교 이래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반영한 이념이며 또한 앞으로 한신대학교가 지향하는 대학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폐쇄적 교리주의를 벗어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함으로써 교회와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하며 설립되었다.¹³⁾ 또한 민주화와 인권운동, 평화·통일 운동을 통해 학문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왔다. 이러한 내용들이 한신대학교가 지향하고 또한 계승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체성이 될 것이다. 이들을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1940년 조선신학교의 개교 이래 현재까지 60년이 넘는 역사발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략 세부분으로 내용을 범주화 할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발전부분이다. 1980년대부터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지만, 한신대학교의 뿌리가 되는 조선신학교는 기독교사에서도 독특한 위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교 및 이후의 발전내용이 중요한 수집분야의 하나가 되며, 대학이 지향하는 이념·정체성 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하위 수집분야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진보적인 민주대학으로서의 발전이다. 이는 크게는 첫 번째 분야에 포함되는

<표 2-1> 한신대학교의 대학 이념¹²⁾

대학 이념
<p>한신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첫째, 진리탐구, 둘째, 자유 구현, 셋째, 사랑 실천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신대학교가 구현하려는 학문의 목적이 인간의 존재성과 사회적 관계성에서의 옳은 존재다움을 종교 교리나 정치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이처럼 한신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정체성의 바탕은 기독교 정신, 기장성, 한신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끊임없이 학문과 양심의 자유,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견인하는 원천이다. 이러한 본래적 자기다움을 잃어버린다면 한신대학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한신대학교 미래 비전은 이러한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 더욱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p>

12) 한신대학교, 『한신비전 2010』, 2003. 9. p.2. : 본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대학의 이념은, 대학의 교육 이념이며 대학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13) 한신대학교, 『한신비전 2010』, 2003. 9. 1쪽 ; 한신대학교, 『한신대학50년사』, 1990. pp.11-22.

내용이지만 독립된 수집분야로 설정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으로서 대학발전 분야는 다소 일반적인 대학발전사적 내용으로 대학 역사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면, 진보적인 민주대학으로서의 발전은 개교 이래로 일관되게 한신대학 역사의 또다른 한 축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이념 및 정체성의 동력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른바 '한신대학교의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기록물의 수집을 통하여 특정정보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되며, 대학의 실천과 사회참여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¹⁴⁾

세 번째로 현재 한신대학교의 재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는 두 번째 수집분야와 마찬가지로 특정정보군 형성 가능성을 토대로 한 수집분야이다. 여타의 다른 기독교 대학과는 다르게 한신대학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이 설립되었고, 교단 설립의 기폭제였던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이 대학의 학풍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활동이 주요 수집분야가 될 수 있다.

대학이 지향하는 이념 및 정체성은 기록물 수집의 중심주제가 되고, 대학의 역사발전에서 위와 같은 특징은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의 주요 수집분야가 되며, 대학의 설립과 역사가 수집할 기록물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은 첫째, 조선신학교의 설립 및 한신대학교의 발전, 둘째 민주화운동과 한신대학교, 셋째, 한국기독교장로

회와 한신대학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수집분야를 정의할 수 있다.

2. 2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

2. 2. 1 수집분야(I)-조선신학교의 설립 및 한신대학교의 발전¹⁵⁾

대체로 범주화를 위한 접근은, 주제(subject), 출처(provenance), 기능과 활동, 기록물의 유형, 지리적 범주(geographical area), 시간적 범주(time period)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반영하여 크게 시간적 범주화, 그리고 주제에 따른 인물, 사건, 관련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여 범주화 한다.¹⁶⁾

이들 기준에 따라 한신대학교의 역사를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적 범주화

시간적 범주는 조선신학교 출범기, 한국신학대학 발전기, 종합대학 발전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 조선신학교(원) 출범기(1940 - 1950)
 - 승동교회 시절(1940 - 1942)
 - 덕수교회 시절(1943 - 1945.7)
 - 동자동 캠퍼스 시절(1945.8.15 - 1950)
- 한국신학대학 발전기(1951 - 1980)
 - 동자동 캠퍼스 시절(1951 - 1957)
 - 수유리 캠퍼스 시절(1958 - 1980)
- 한신대학교 발전기(1981 - 1990)

14) 안병우, 「한신기록정보관의 설립과 미래」,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 개관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2004, p.23.

15) 제 2절 조선신학교의 설립 및 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은 '한신대학교, 『한신대학50년사』, 1990'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16)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p.45-46.

위와 같은 시기 구분에 따라서 하위 수집범주를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의 설립 및 역사가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결국 조선신학교의 출범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별 발전 내용이 하위 수집범주가 되는 것이다.

조선신학교 설립 및 한국신학대학 및 한신대학교의 발전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기록물들은 시기별로 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들을 그 하위 수집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캠퍼스 이전 및 대학 운영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문서, 제규정, 대학내 여러 기관의 회의록, 보고서, 예산관련 기록, 학생활동기록, 졸업앨범, 재학생명부, 졸업생명부, 기념품, 사진 등은 시기별로 내용이 다를 뿐 시기마다 존재하는 공통된 기록물들로서 수집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들은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한다.

(2) 주제별 범주화

주제별 범주의 기준은 인물, 사건, 주요 활동이 된다.

① 인물

인물은 설립자 및 설립관련 인물, 교수 및 강사진, 학생, 그리고 목사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역대 총장도 인물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 설립기성위원회 실행위원회

- 채필근, 김우현, 윤인구, 조희염, 함태영, 김길창, 차재명, 한경직, 백영협, 김관식 등

○ 설립자 및 이사, 설립기의 교수, 강사진

- 설립자: 김대현장로
- 이사 : 함태영, 김관식, 오진영, 조희염, 김길창, 김영주, 김영철, 한경직, 윤인구 등
- 전임교수 : 윤인구, 김재준 등
- 강사진 : 김창제, 갈기홍, 현재명, 함태영, 유호준, 전성천, 김종대 등
- 주요인물
 -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송창근, 함태영, 서남동, 박봉량, 정경연 등

② 학내 주요 사건

- 김재준목사 목사직 파면사건
- 김정준 학장의 필화사건(1962. 4월호<신사조>에 발표한 논문)
- 한신국민학교 설립과 운영, 폐교(1982.8.11)
- 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한 규탄 사건

③ 학문활동

한신대학교는 민중신학의 산실이었다. 민중신학은 1970년대에 생겨난 한국 개신교의 실천신학으로, 교수로 재직하였던 안병무, 서남동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신학자이다. 실천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은 한신대학교의 학문의 특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활동이 된다. 또한 정치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으며, 전통적인 좌파이론으로 무장된 진보적인 인문, 사회과학 교수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간 한신대학교의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집 범주가 된다. 따라서 민중신학 및 정치경제학 관련 학문활동을 수집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수집 기록물의 유형은 각종 논문, 보고서, 강의 및 심포지엄자료

집 등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학내 자율기구 조직 구성 활동

학내 자율기구의 조직과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수집대상 분야는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이 주목할 만 하다. 교수평의회는 교수들의 자율적인 협의기구이고, 직원 노동조합은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조직되어 합법성을 갖추게 되었는데, 대학 학사운영의 제반규정을 가장 민주적으로 개정해 가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다. 따라서 학내 자율기구 조직 구성활동과 관련한 수집 범주는, 교수 평의회 구성과 활동, 직원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⑤ 간행물 발행

학내 간행물 발행을 통해 교수 및 대학 구성원들은 서로 소통하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한신대학교는 개교 이후 1980년도 까지 신학대학으로서 규모가 작은 대학이었지만 소식지, 학보, 논문집 등의 간행물 발행이 활발하였다. 따라서 당시 간행된 간행물을 주요 수집 범주로 정의하였다.

- 1948년 <임마누엘>발행(학우회), 1953년 <코이노니아>, 1955년 <한국신학대학보>(1960년 제6집을 <신학연구>로 개칭, 속간), 1957년 <목자>, 1962년 <한국신학대학 뉴스>, <한신학보>, 1965년 <세계와 선교>, 1973년 <한국신학대학학보>, 1984년 <한신>교지 등

이 외에 각 과에서 발행한 간행물 또한 수집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2.2 수집분야(Ⅱ)-민주화운동과 한신대학교

(1) 한신대학교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범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이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였다.¹⁷⁾ 좀더 구체적으로는,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⁸⁾

한신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에서의 민주화운동은 비단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건들에 연루된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원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및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의 각종 노동운동 및 빈민운동, 인권운동도 대학의 민주화운동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학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시국사건과 관련된 학생 및 교수활동
- 대학 학내 학원민주화 운동
- 교수들의 진보성향 관련 활동(성명서 발표 등)
- 교수·학생 및 동문, 관련단체의 통일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등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http://archives.kdemocracy.or.kr/>, 2004. 10.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정 2001.7.24 법률 제6495호]’ 제2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제정 2001.10.31 대통령령 제17396호]’ 제2조.

위의 활동과 관련된 각종 단체, 인물, 사건들이 한신대학교 민주화운동의 수집 범주가 될 수 있다.

(2) 한신대학교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범주

기록물의 수집 범주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 60여 년간 진행되었던 한신대학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에서 중요한 활동, 사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¹⁹⁾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이 정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근대적 의미의 한국 학생운동의 기원을 2·8 동경유학생 독립선언,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일제 하 민족독립운동에 두고 있는 것이 정설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학생운동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은 역시 가부장적 독재정권을 대규모 시위에 의해 붕괴시킨 1960년 4·19부터라 하겠다. 이처럼 한국의 학생운동은 거의 한 세기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변동의 길목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학생운동은 70년대 후반 긴급조치로 인해 일시 지하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사회 각 부분의 민주화운동이 성장하면서 학원민주화·자율화 운동, 노학연대 투쟁, 강제징집 의문사 항의, 학생운동의 조직화(전학련-삼민주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 졌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후하여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후 일련의 평화통일운동까지 높은 수준의 운동을 유지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운동의 흐름을 반영하여 수집기록물의 대상 시기를 1960년-1990년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학생운동사의 흐름에 대학의 역사를 억지로 맞춰 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신대학교의 학생운동 및 교수의 사회참여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 시기를 1960년대로 하였고, 19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는 학원가의 학생운동이 쇠퇴·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여겨져서 좀더 면밀한 고찰을 위하여 그 하한 시기를 1990년대로 하였다.

따라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연대는 1960년-1990년까지의 시기이고, 한국신학대학 시절(1960-1970), 종합대학 한신대학교 시절(1980-1990)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한국신학대학 시절(1960-1970)

○ 한일회담 반대운동 관련 사건

- 1965년 4월 오영석(2004년 현 총장), 양교철(목사), 전병금(목사), 권호경(목사)이 주동이 되어 시내 중심가에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오영석, 양교철은 약 3개월 실형을 받아 옥고
- 한일협정비준반대시위와 관련되어 전국대학에서 교수들 추방. 한국신학대학(현 한신대학 교)의 전경연 교수가 1968년 정치교수로 지목되어 대학에서 쫓겨 남. 전국 21명 교수 중 1명이었으며 신학계

19)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흐름은 김도중의 '한국학생운동의 쇠퇴와 전망-제도화에서 탈제도화로'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김도중, 『한국학생운동의 쇠퇴와 전망-제도화에서 탈제도화로-』, 『한국과국제정치』16, 1992.12.

에선 유일한 교수.

- 3선 개헌 반대 운동 및 긴급조치 반대와 유신철폐 운동
 - 1973년 11월 15일 한국신학대학 안병무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게 삭발 제의. 김정준 학장 부터 10명의 교수들이 삭발. 이에 일부 학생들도 삭발을 단행하고 단식에 들어가며 결의문을 발표.
 - 긴급조치 반대와 유신철폐 성명서 발표.
 - 1974년 3월 14일 한국신학대학 학생회, 구국성명 발표.
 - 1975년 3월 26일 학생회는 '75 고난선언' 채택, 격렬한 반정부 시위 단행. 이에 문교부는 '수업정상화촉구' 명령을 내렸고, 4월 10일 0시 10분을 기해 "스스로 개강할 권리와 재량 탈취"하는 휴업령 내림.
 - 문교부의 학사감로 10명의 학생과 안병무, 문동환 교수의 해임을 휴업령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두 교수는 해임되었고, 학생 12명도 제적처리 됨. 휴업령 해제.
 - ∴
- 수도권 특수지역선교위원 선교자금 사건 및 기독교탄압 사건
-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 운동
 - 1980년 5월 초에 교수들은 사회전반의 민주화 열기가 가열되는 상황에서 교수의 입장을 표명. 장일조 교수가 초안작성, 교수회에서 수정·통과하여 배포.
 - 7월 16일 한신대학의 황성규 교수가 서대문 합수부에 소환, 10일간 심문 받고,

교수사직서 작성 강요받음. 문교당국의 요구로 문동환, 안병무 교수 해직

- 81년 11월 4일 윤인중, 강명진 등이 '반파쇼투쟁기독교학우선언' 배포, 교내에서 전두환 군 부독재타도 집회 주도 후 연행되어 실형을 선고 받음.

② 한신대학교 시절(1980-1990)

- 학원민주화자율화 운동
 -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결성(1980. 3.28)
 - 학원민주화 1·2차 집회(1984.3.20, 1984. 4. 4)
 - 한신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1984.4.20)
 - 신민주화 선언(1985.3.21)
 - 범한신 학내민주화추진 공개토론회 1차~2차(1988.4.27, 29.)
 - 한신민주쟁취를 위한 진군대회, 단식 89. 9.26
- 류동운 추도식과 관련한 운동(5.18 광주민중항쟁)²⁰⁾
 - 류동운 추도식 1980.10.8(해마다 추도식 진행)
 - 광주민주영령 추모식(1984.5.17)
 - 광주학살 진상조사특위 발대식(1985.5.3)
 - 류동운열사 추모비 제막식(1986. 5.27)
 - ∴
- 교수·학생 민주화운동, 노학연대 투쟁, 학생운동조직화, 의문사 항의 관련 운동
 - 건국대 애학투련 결성식(1986.10.28)
 - 건국대사건 한신대 학부모협의회 결성(1986.11.11)

20) 류동운 열사는 광주민주항쟁 때 광주도청에서 사살되어 망월동 묘지에 안장되었다. 한신대학교는 류동운 열사 추모비를 건립하였는데, 이는 당시 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광주민주항쟁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한 것이었다.

- 교수단 4.13 호헌에 대한 시국선언 발표 (1987.5.4)
- 교수 42명 '오늘의 사회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시국선언 발표(1986.4.2)
- 노학연대투쟁위원회 결성식 및 실천대회(1986.4.15, 22)
- 해방대학 선언대회(1986.5.15)
- 군부독재 종식 및 민주회추진위원회 결성식, 호헌철폐를 주장하는 식발식(1987.5.7)
- 박종철고문조작사건 수원지구 학생성토회, 호헌분쇄대책위 결성식(1987.5.28)
- 6.10대회(1987.6.10)
- 취업저지를 위한 민족한신 출정식, 가두시위(1988.2.25)
- 수원지역 학생대표자협의회 결성, 경기지역 학생연합 건설추진위원회 결성(1988.4.8)
- 반노민중생중권옹호투위 결성식(1989.3.2)1
-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한 2천 한신 결의대회, 20여명 식발 (1989.5.17)
- ∴

위에서 제시한 운동들 외에, 관련 인물·단체 등에 관한 각종 기록물도 또한 수집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 2. 3 수집분야(Ⅲ)-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교단의 성립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 한국신학대학이 대한예수교장로회로부터 배척당함에 따라 한국신학대학을 유지·존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한신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성립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초기의 한신대학교는 종합대학이 아닌 신학대학이었으므로, 재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성격, 성향, 활동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 범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한 교단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교회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당시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여 목회활동 내지는 사회운동을 했던 동문의 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수집 필요성이다. 당시의 한국신학대학은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대학이었다. 따라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향하는 목회자 상은 그대로 대학의 교과과정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교과과정을 통해 목회자가 양성되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의 이후의 활동은 그야말로 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학 졸업 후 한신동문들이 어떠한 부분의 사회운동을 하였으며 혹은 주로 어떤 성향의 목회자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대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목회자들의 활동을 전부 수집 대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직은 생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집범주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범주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의 설립관련 활동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 및 관련 회

의록

- ‘이단’ 논쟁을 보여주는 있는 글 및 논문류, 관련자들의 입장 발표와 관련된 자료 등
 -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 등
- (2)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의 특징(기장의 진보성) 및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 활동
- 에큐메니컬운동(교회일치운동)
 - 선교활동(캐나다 연합교회와의 선교협력 등)
 - 교단 내 제도개혁(부목사- 여자장로제 채택, 여목사제 채택 등)
 - 사회참여(노동, 빈민, 통일, 민주화운동 부문과 관련된 교단차원의 활동)
- (3) 동문들의 사회참여 활동
-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한 동문들이 주된 대상이 되며, 이 분야에서는 목회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²¹⁾

3.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수립안

3. 1 수집정책 구성요소

필립(Phillips)은 수집정책 수립 모델 요소

를, 단체 혹은 수집의 목적에 대한 진술, 수집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형태, 이용자, 수집의 우선순위와 한계, 수집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력적인 동의, 자료공유 방침에 대한 진술, 처리정책에 대한 진술, 수집정책과 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 수집개발 지침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 등으로 제시하였다.²²⁾

쉬리치(Schwirtlich)와 리드(Reed)는, 기관 혹은 아카이브즈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진술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권한에 관한 진술문, 용어 정의(기록물, 비현용기록물, 아카이브즈, 아키비스트, 기탁자, 영구적 가치, 재처리, 처리),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 설명(이관, 구매, 기증, 대여), 수집초점에 대한 기술, 향후 5년~10년 동안의 수집 우선순위에 대한 진술문, 자료가 수집될 시에 충족해야할 일반적인 조건 기술, 불필요한 자료의 처리와 검토에 대한 기술, 잠재적 수집을 위한 자료에 관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정책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²³⁾ 이 외에도 수집정책 구성요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²⁴⁾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구성요소는 다양한데, 햄(Ham)은 수집정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공통 요소로, 기록

21) 대표적인 동문 목회자로 김관석 목사, 강원용 목사, 허병섭 목사 등이 있으나 대내외에 알려진 동문목회자 뿐 아니라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동문 목회자가 이 분야의 수집범주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22)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 1984, pp.39-42.

23) 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1987, pp.140-141.

24) Daniels M. & T. Walch, "Archival Acquisition", *A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s, 1984; Gregory S. Hunter, *Developing and Maintaining Practical Archives(A How-To-it Manual)*, 1997 ; Cynthia K Sauer, "Doing the Best We can? The use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Cooperative Collecting Activities at Manuscript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 64, 2001.

관 사명문의 작성, 기록물 수집분야 및 범주의 설정, 우선순위의 설정, 수집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²⁵⁾

본 연구에서는 햄이 제시한 요소들을 골격으로 하여 수집정책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구성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항목을 검토, 적용하고자 한다.

3. 2 기록관의 사명문 작성

일반적으로 기관의 사명(Mission) 이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된다. 즉 사명은 조직에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침이 되는 전반적인 개념 또는 원칙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사명문에는 조직과 사회와의 관계, 조직의 활동 그리고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실행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대개는 이러한 사명을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이를 흔히 사명문(Mission statement)라 한다.²⁶⁾

즉, 대학기록관의 사명문은 기록관이 어떤 기관이며,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를 설명하는 문서가 된다.

사명문은 기록관 또는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적 진술(혹은 컬렉션의 목적 진술), 및 기록물 획득의 권한 및 권위 진술, 크게 두 부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⁷⁾

먼저, 기록관 또는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적 진술에는, 기록관은 어떤 집단·활동 그리 경험을 문서화 하는가, 기록관리 프로그램은 왜 만들어졌는가, 기록관은 어떤 기록을 수집할 것인가, 기록관은 어떤 단체의 이익에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다.²⁸⁾

두 번째로, 기록물 획득의 권한 및 권위 진술, 이 부분에는 기록관의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권한과 기록물 획득의 권한이 부여된 사람 혹은 조직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²⁹⁾ 이와 관련하여 기록관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설립, 법적 위상과 목적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공식적 문서에 이러한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권위와 사명을 기술한 사명문에 기록관은 그 기관의 유일한 공식 기록관리 조직으로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고 보관했던 모든 기록들은 기록관의 자산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당연한 이 사실을 성문화 해놓지 않는다면

25)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p.39-55.

26) Michael Roper, *Strategic Planning for Records and Archives Services*, ICA, 1999, p.31 : 최광호, 『기록물관리 기관의 계획수립』, 『제2회명지대학술대회자료집』, 2002. 4. pp.4-5.

27) 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1987, pp.140-141. :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 1984.

28) Tomas Wilsted, William Nolte, *Managing Archival and Manuscript Repositories*, SAA, 1991; 이소연 역, 『기록관 경영』, 진리탐구, 2004, p.62.

29) 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1987, pp.140-141.

실제 기록물의 수집업무 뿐만 아니라 이후의 기록물 활용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많은 혼란과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³⁰⁾

이와 같은 내용을 적용하여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의 사명 및 목적에 관한 진술문을 <표 3-1>과 같이 작성해 보았다.

3. 3 수집 분야와 우선순위의 설정

3. 3. 1 수집분야 및 범주의 설정

수집정책 수립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수집분야 및 범주에 대한 설정은 본고 제2장에서 살펴보았다. 제2장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수집분야의 개요문을 작성할 수 있다. 내용은 <표 3-2>와 같다.

3. 3. 2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

수집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은, 앞서 정의한 수집분야와 범주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

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수집분야와 범위를 정하고, 그들 중에서 먼저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기록물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기록물의 설정을 통하여, 이들 중요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핵은,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기록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아카이브즈가 아닌 정보원(예컨대 신문, 정기간행물, 정부간행물, 단행본, 각종 출판물) 속에 적절하게 다큐멘테이션된 기능이나 주제에 관한 기록물, 동일한 기능적 분야나 수집분야에 속하는 기록물로서 타 기록

<표 3-1>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의 사명문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의 사명
<p>기록정보관은 한신대학교 설립시기(1940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학의 활동 및 이와 관련한 기관·단체·인물 등의 기록물 중 영속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대학 구성원 및 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p> <p>본 기록정보관의 운영정책은 대학의 기록물관리위원회³¹⁾에 의해 승인되며, 사명 수행을 위한 업무는 기록정보관규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p> <p>본 대학 기록정보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신대학교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기록정보관에서 수집한 모든 기록물은 한신대학교의 공적인 자산으로 관리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학 내의 행정적, 재정적, 법적, 역사적, 기록물의 보존 및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 수집된 기록물을 평가, 분류, 이관, 정리, 기술 보존하고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 타 대학 기록관 및 기록물관리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0) Elizabeth Yakel, *Starting an Archives, 1994* ; 강명숙 역, 『아카이브 만들기』, 진리탐구, 2003, p.66.

〈표 3-2〉 한신대학교 역사기록물 수집 개요문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은 한신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기독교정신, 기장성, 한신성을 다큐멘테이션할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한다. 이러한 다큐멘테이션을 통하여 대학이 교육이념인 진리 탐구, 자유 구현, 사랑의 실천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한다. 기록정보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신학교의 설립 및 이후 대학의 발전(1990년대 이전)에서의 주요 활동, 인물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한다.
 - ① 조선신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담은 기록물
 - ② 주요 활동은 민중신학 수립 및 정치경제학 발전과 관련된 학문 활동을 포함하고, 교수 평의회 조직 및 직원노조 설립과 관련한 학내 자율기구 구성활동, 간행물 발행 활동을 포함한다.
 - ③ 주요 인물은 조선신학교 설립관련 인물, 김재준, 송창근, 함태영, 문익환, 안병무, 서남 동, 전경연, 박봉량 등 대내외적 활동이 활발했던 인물을 포함한다.
2. 한신대학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한다. 이를 위하여 개교 이래의 각종 시국사건, 학내 민주화운동 및 통일운동, 노동운동 등 과 관련된 인물, 단체, 활동에 관 한 기록물을 수집한다.
3.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단설립 및 목회자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한다.

※ 기록정보관은 위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수집하며, 제3번과 관련하여 종교기록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관에 소장된 기록물, 혹은 이러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록관의 수집프로그램, 적기에 이관되지 않을 경우 분실될 위험이 있는 기록물, 연구 목적상 추가적인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로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기록물 등을 제시하였다.³²⁾

필립은 소장기록물의 강점, 약점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³³⁾

이러한 기준들이 기록물 수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제시된 기준들이 그 지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기록물 수집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첫 번째 기준은 소장 기록물 분석이 된다. 소장기록물 분석 즉 컬렉션 분석을 통하여 소장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기록물의 수집 분야 및 수집 범주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도 수행되는 분야이다. 소장 기록물의 분석은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서 소장물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컬렉션 분석은 그 동안 기록물 수집정책의 방대함과 일반성으로 인해 수집활동이 비체계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낀 아키비스트들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컬렉션 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

31)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규정 제6조, 제7조.

32)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46쪽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 1984, pp.38-39.

33)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 1984, pp.39-42.

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³⁴⁾ 소장기록물의 분석을 통해 소장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강점과 약점을 보충하는 기록물을 수집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한신대학교의 경우는 소장물 분석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다. 기존에 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해 왔던 부서가 없었고, 또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수집분야 및 우선순위를 정의하는데 참고 이상의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풍부하게 하기 보다는 새로운 분야의 기록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집분야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³⁵⁾

두 번째는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수집분야를 정의할 때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한신대학교의 '진보적'인 이념을 보여주는 활동, 사건, 인물이 해당될 것이다.

세 번째는 기록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는 기록물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기록물을 우선 수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³⁶⁾

네 번째는 아카이브즈가 아닌 정보원 예컨대, 신문·정기간행물·정부간행물·단행본·각종 출판물 속에 적절하게 다큐멘테이션 된 기능이나 주제에 관한 기록물, 동일한 수집분야에 속하는 기록물로서 타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의 경우, 수집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리한 수집 보다는 타 기록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목록확보가 바로 이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며, 기록물의 우선순위를 정의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다.

다섯 번째는 적기에 이관되지 않을 경우, 유실될 위험이 있는 기록물을 수집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앞선 시대의 기록물은 최근의 기록물에 비해 시간상 유실될 확률이 높다. 조선신학교의 설립 및 개교당시의 활동 및 인물에 관한 기록물이 해당되며, 개교 이후 30년 이내의 기록물이 포함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총장 및 명예교수 및 대학관련 인물의 타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록물을 수집하여야 한다.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 기록물은 이미 유족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들로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34) Judith E. Endelman, "Looking Backward to Plan for the Future: Collection Analysis for Manuscript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 48(summer 1985), pp.340-353;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42.

35) 김선미, 『매뉴스크립트 입수정책』, 제2회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학술대회 자료집, 2002, p.49.

36) 김락기, 『시흥시 향토자료실 소장자료의 현황과 관리·운영 방안』, 『경기도 행정자료전시관 개관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경기기록문화포럼, 2004, 12.

할 기록물의 수집 범위가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의 중요성만으로 수집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물의 내용이 중요하다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수집 가능한 조건에 있는 기록물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는 보통 기록물의 물리적 포맷이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기록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 자료의 물리적 포맷, 관리 능력, 보존 그리고 그것에 접근 제공 능력 등이, 수집 결정에 영향을 준다.³⁷⁾

즉, 기록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저장, 보관 설비,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즉 이용을 위한 적당한 환경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 즉 문서자료 등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다른 포맷의 기록물에 대한 수집계획은 이용을 위한 장비 등의 구축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 및 열람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록물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검토해야하는 사항이다. 대학의 홍보를 위한 자료집 발간 및 대학사를 편찬할 때 이용되는 기록물이 대표적이다.

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누가 컬렉션을 이용하고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수집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용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자료는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혹은 순간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이다.³⁸⁾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록물의 우선순위는 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주제)의 중요성, 물리적 포맷, 이용과 관련한 기준들을 통하여 정의될 수 있다.

3. 4 기록물 수집을 위한 지침

3. 4. 1 수용조건

기록물을 이관 받거나 혹은 기증을 받아 기록물이 기록관의 소장물이 된다는 것은 기록관이 기록물의 물리적인 소장권(physical custody)과 함께 법적인 소유권(legal custody)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학처럼 다양한 층위의 기증자를 통해 기록물을 기증 받는 경우, 물리적, 법적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용조건이란 이처럼 기록관으로 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물리적, 법적 소유권한을 확인하고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기증자 및 수증자 확인 · 소유권한 및 접근제한 · 기증기록물 확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³⁹⁾

기록물을 기증 받을 때에는 기록에 대한 소

37) 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1987*, pp.140-141.

38) 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1987*, pp.140-141.

39)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 · 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47.

유권과 동시에 복사권과 기타의 모든 권리도 양도 받아야 한다. 이상적인 기증은 기록관이 기록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증을 받을 때 기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매뉴스크립트의 경우는 기록물의 특성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록물을 기증 받을 때 수용조건에 관하여 기증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에는 기록의 이관을 보존소와 기증자가 모두 동의한 용어로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잡하지만 기증 조건을 정교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증자와 기록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증증서의 작성 및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⁴⁰⁾

기증증서는 보통 기증자와 수증자 간의 협의 후에 마련되며, 기증자와 기록관, 모두 서명함으로써 기증이 완성된다.

기증증서에는 일반적으로, 누가 기증자인가, 누가 수증자가 될 것인가, 기록관으로 이전되는 자료는 무엇인가, 권리 이전 일자는 어떤 시점이 되는가, 저작권은 누가 갖는가, 이용에 있어서의 제한조건은 무엇인가, 처리권한은 누가 갖는가, 후속 기증을 다루는 조항은 무엇인가와 같은 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⁴¹⁾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기증자와 수증자가 누구인지를 명

확히 하는 것이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간에 기증자와 기증물의 법적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증증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증자는 자료의 생산자, 생산자의 상속자, 구매자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서문과 서명부분에 표시된다. 기록의 생산자와 기증자 간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자명하지 않다면 그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기록관으로 이전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기증증서에는 컬렉션의 범위와 내용, 문서에 적힌 날짜, 이관물의 물리적 양뿐만 아니라 출처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리가 잘 된 대규모 컬렉션의 경우 인벤토리를 준비해서 이를 기증증서에 첨부할 수도 있다. 또한 컬렉션의 범위와 내용, 문서에 적힌 날짜, 이관물의 물리적 양 뿐만 아니라 출처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⁴²⁾

세 번째, 권리와 이전 일자는 어떤 시점인지를 명시하는 것이다. 법적 기증문서는 기증자가 서명한 날짜와 기록관이 받아들인 날짜를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저작권은 누가 갖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물리적 권리와 지적 권리의 구분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여기서다. 물리적 권리는 기록관으로 옮겨졌으나 자료의 저작권은 기증자가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기증문서에 저작권이 기증자에서 기록관으로 옮겨졌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

40) Elizabeth Yakel, *Starting an Archives, 1994* : 강명숙 역, 『아카이브 만들기』, 진리탐구, 2003, pp.68-70.

41) Trudy Huskamp Peterson, 「기증과 아카이브즈」, 『한국국가기록연구원소식』 T1호, 2002, 7 :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p.157-158.

42)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158.

람직하다. 이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기증증서는 적어도 누가 저작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이용에 있어서 접근제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말해서, 시간이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시점까지 공개를 금지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활동에 대한 기록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기록관은 기증자, 상속자, 그리고 대리인이 접근을 통제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처리권한은 누가 갖는가에 대한 것이다. 기증에는 종종 어느 정도 의미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증자가 받은 여러 장의 동일한 심포지엄 안내장, 여러 상자에 가득한 행사자료 사본 등이 될 수 있다. 기증증서에는 기록관이 이런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처분'에 포함되기도 한다.

일곱 번째, 후속 기증을 다루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관이 추가로 자료를 기증할 때마다 새로운 법적 기증문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모든 후속적 기증이 근거할 수 있는 조항을 처음 작성한 기증증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후, 기증자와 기록관은 추가 이전이 이루어지는 때 시점에서 원래문서에 근거하여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간단한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기록물의 목

록을 준비하고 원래의 기증증서에 이 문서와 목록을 첨부한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기증증서 항목으로 선택되어 작성될 수 있다. <표 3-3>의 양식을 통하여 수용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4.2 처분

처분은 기록물의 기증이 이루어질 때 기록관이 수집정책상 보존하기 부적절한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기록관에서 수집되는 기록물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집정책에는 수집물 중 관련성이 적거나 보유하기에 부적절한 기록물 처리에 관한 사항, 즉 원하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에 적합하지 않은 기록물의 처리에 대하여 기증자에게 동의를 받을 것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록관이 원하지 않는 기록물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이관될 수도 있고, 매각될 수도 있으며, 기증자에게 반환되거나 혹은 폐기될 수도 있다.⁴³⁾

원하지 않는 기록물의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은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포함한 처분 정책, 처분 기준 그리고 처분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⁴⁴⁾

그리고 수집정책에는 기록관이 수용하지 않는 분야의 기록물과 기록물의 유형 및 분야에

43)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50.

44) Anne-Marie Schwirtlich and Barbara Reed,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1987, p.141.

〈표 3-3〉 기증증서

<p>기증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p> <p>기록물 기증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신대학교의 역사기록물을 위하여 이 소중한 기록을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p> <p>컬렉션 기술 : 이 용 제 한 : 폐 기 조 건 :</p> <p>기증된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으로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기증된 기록물은 한신대학교의 자산임에 동의하며,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의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활용,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기증자 서명 : _____ 기증자 주소 : _____ 기증자 연락처 : _____ 기증 일자 : 2005년 월 일</p> <p>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을 대표하여 수령</p> <p>수령 일자 : _____ 아키비스트 서명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중앙도서관 2층 ☎ 031-370-6443</p>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수집범위로 설정하지 않은 분야의 기록물은 수집정책에 따라 수용제의 대상이 되며, 수집정책에는 처분과 함께 수용제의 기록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처분 이유 및 목적, 처분 기준, 처분 과정 및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처분지침을 〈표 3-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처분은 신중히 수행해야 할 업무이나 초점이

잘 잡힌 수집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중한 처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처분정책을 성문화 시켜 처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록물의 처분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처분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처분 결정이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신중한 처분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⁴⁵⁾

45) Lawrence Dowler, "Deaccessioning Collections: A New Perspective on a Continuing Controversy", in Peace(ed), *Archival Choices*, 1984, pp.117-32 ;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p.171-177.

〈표 3-4〉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의 처분지침

처분 지침
<p>처분 목적</p> <p>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한정된 공간과 직원, 관리장비 등 여타 자원에 대한 제약을 고려하여 수집 정책에 따라 수집범위를 한정해서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한다. 본 지침은 풍부한 연구가치 혹은 재정적 가치를 가진 본 기록정보관의 컬렉션 속에 포함된 기록물 중, 처분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중 일부를 처리하고자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처분 과정 및 방법을 개관하는데 목적이 있다.</p>
<p>처분 기준 및 절차</p> <p>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은 소장 기록물 및 기증기록물의 처분은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지며, 처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 수집정책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자료인가? 2. 현 수집정책의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른 기록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인가? 3. 자료가 중복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가? 4. 열람 및 이용 가능한 유형의 자료인가? 5. 자료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가? 6. 자료를 처분할 경우 정보에 대한 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p>처분</p> <p>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기증기록물이 수집범위와 맞지 않거나 소장하여 관리하기에 부적절하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록물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다. 처분은 기록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처분은 기록물의 처분에 대하여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처분 조치가 기록정보관과 기증자 간의 합의에 위배될 경우 자료를 처분할 수 없다. 자료를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증자와 협의해야 한다.</p> <p>처분은 사안에 따라 폐기, 기증자에게 반환, 다른 기관으로의 양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p>

3. 4. 3 다른 기관과의 협력

수집업무에 협력이 기록관 규정에 포함될 때, 수집정책에는 협력의 성격과 범위에 관해 명시하여야 한다.⁴⁶⁾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은 규정에 따라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을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유사한 분야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주요한 사항에 포함된다.

수집정책 수립에서 아키비스트는 반드시 다른 사무실이나 동일 지역이나 국가 내에 유사한

소장기록을 가진 기록관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한 기록관이 새로운 분야를 수집하거나 지역적 수집 영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수집정책이 진실로 필요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⁴⁷⁾

한신대학교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기관이 많이 있다. 첫 번째는 대학을 대표하는 중요 인물들과 관련한 기념관 및 기념사업회이다. 장준하 기념사업회, 통일맞이 늦봄 기념사업회, 장공기념사업회, 송암교회의 함태영기념관 등이 해당 기관이다. 또한 비슷한 주제를 수집대

46)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53.

47) Elizabeth Yakel, *Starting an Archives, 1994* : 강명숙 역, 『아카이브 만들기』, 진리탐구, 2003, pp.54-55.

상으로 설정한 기록관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이 해당된다. 또한 의문사와 관련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추모연대와 같은 조직 및 단체 또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개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컬렉션의 기증의사를 밝히는 기증자에게는 타기록관에 양도를 권장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유사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수집정책을 가진 기록관들의 경우 협력적으로 수집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타기관의 소장물의 사본을 소장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록물의 목록공유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협력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수집정책은 기관의 성격에 맞고, 수집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의미가 있다. 또한 일단 수립된 수집정책은 기록관이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었을 때 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수집정책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고 수정되어

끊임없이 제 역할을 위한 자기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관에 맞는 수집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⁴⁹⁾

우리나라의 대학기록관은 대부분 설립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를 체계화시키고 기록관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방안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집정책 수립은 기록물관리업무 계획과 기록물의 활용을 미리 기능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기록물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이용과 활용,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록관의 재정 등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한 기록물 수집정책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계획된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기록관의 업무는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대학기록관의 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수립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대학 역사기록물의 수집정책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 제시되었던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를 한신대학교를 모델로 하여 적용하여 보았다. 그러나 수집정책이 기록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는 앞으로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수집정책 구조 및 구성요소의 적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고 또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8)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53.

49)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1993 :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2002, pp.40-54.

참 고 문 헌

- 강경무·김상민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 강명숙 역. 2003. 『아카이브 만들기』. 진리탐구.
- 김도중. 1992. 한국학생운동의 쇠퇴와 전망-제도화에서 탈제도화로-. 『한국과 국제정치』, 16.
- 김락기. 2004. 『시흥시 향토사료실 소장자료의 현황과 관리·운영 방안』. 경기도행정자료 전시관 개관기념 학술심포지엄, 경기 기록문화포럼.
- 김선미. 2002. 매뉴스크립트 입수정책.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제2회 학술대회논문집』.
- 안병우. 2004. 『한신기록정보관의 설립과 미래』. 한신대학교기록정보관개관기념심포지움 자료집,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
- 이소연 역. 2004. 『기록관 경영』. 진리탐구.
- 이종흡. 2001. 대학기록관설립의 필요조건: '미성숙한' 기록관리 방법의 시험 운용 방안. 『기록학연구』, 제3호.
- 조영삼. 1998. 『80년대 학생운동과 한신에서의 운동 양상』. 고 이해진 동지 추모 10주기 자료집,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 조희연편. 2002.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 책.
- 최광호. 2002. 기록물관리기관의 계획수립.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제2회학술대회논문집』.
- 한신대학교. 1990. 『한신50년사』. 한신대학출판부.
- Anne-Marie Schwirtlich and Babara Reed. 1987.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Judith Ellis(ed.), *Keeping Archives*, ASA.
- Daniels M. & T. Walch. 1984. "Archival Acquisition", *A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s.
- Dorothy R. Frye. "Linking Institutional Missions to University and College Archives Programs: The land-Grant Model." *American Archives*, Vol.56 (winter 1993).
- Elizabeth Yakel, 1994, *Starting an Archives*, SAA.
- Faye Phillips. 1984.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
- F. Gerald Ham. 1993.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Chicago.
- Gregory S. Hunter. 1997. *Developing and Maintaining Practical Archives(A How-To-it Manual*, Archives(A How-To-it Manual).
- Hans Booms. 1987.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 H. W. Samuels. 1992. *Varsity Letters: Documenting Modern Colleges and*

- Universiti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Michael Roper. 1999. *Strategic Planing for Records and Archives Services*. ICA.
- Tomas Wilsted, William Nolte. 1991. *Managing Archival and Manuscript Repositories*, SAA.
- William J. Maher. 1992.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 한신대학교. 2003. 한신비전 2010.
-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규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정 2001.7.24 법률 제6495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제정 2001.10.31 대통령령 제17396호]’
- Trudy Huskamp Perterson. 2002. “기증과 아카이브즈” 『한국국가기록연구원소식』, 11호.
- The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Section of the SAA. 2002. “Guidelines for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카이브즈협회(AABC). 1999. 소규모 기록보존소를 위한 업무 편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2004. 10. <<http://archives.kdemocracy.or.kr/>>